

국내 주조산업의 선두주자 SIMPAC인더스트리가 SIMPAC그룹의 가족으로 새롭게 출발합니다



ONE & NEW

BEST PRODUCT & TECHNOLOGY

80여 년간 대한민국 소재산업의 근간인 주조사업을 이끌어 온 SIMPAC인더스트리는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산업기계, 공작기계, 감속기 및 부품을 생산하며 고품질의 주물을 필요로 하는 글로벌 기계 메이커들의 든든한 파트너로서 동반 성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SIMPAC인더스트리는 R&D 투자확대를 기반으로 기술 및 품질을 강화함으로써 더 나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사랑 받는 기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

주조

공작기계 및 산업 기계류 주물소재 제조

산업기계

고무, 플라스틱 관련 생산설비 설계 및 제조

공작기계

일반용 및 자동화 공작기계 제조

감속기

주요 산업생산설비용 감속기 제조



TRUST, 신뢰

누군가를 전적으로 신뢰할 때, 그리고 그 누군가가 나를 100% 신뢰하고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드나요? 상대방이 나의 바람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없고, 예상과는 다른 행동을 하더라도 해를 끼치려는 목적이 없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 매우 편안한 느낌이 들게 됩니다. 이는 신뢰가 바탕이 된 관계들의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뢰를 뜻하는 영어 Trust의 어원이 ‘위안-마음을 편안하게 함’이라는 뜻의 독일어 Trost라는 것이 이를 뒷받침해줍니다.

SIMPAC인 여러분도 가족, 친구, 동료들과 편안한 관계를 만들고 싶다면 한 발 먼저 다가가 그들에게 깊은 신뢰를 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관계란 상호적인 것이기에 가는 것이 있다면 그만큼 돌아오게 마련이니깐요.

SIMPAC 더하기 신뢰



04	신뢰로 함께 하는 사람들	최고의 콤비 파트너
20	기획칼럼	신뢰가 가진 힘을 아십니까?
26	우리 팀을 소개합니다	SIMPAC인더스트리 영업1팀
30	차 한 잔 나누며 Talk Talk	SIMPAC의 미래를 이끌어 갈 신입사원들
34	With Us 01	SIMPAC메탈로이 호프데이
36	With Us 02	SIMPAC메탈 가든파티
38	다락방	SIMPAC인의 여름 나들이
40	Letter from SIMPAC인	당신을 칭찬합니다
42	SIMPAC NEWS	SIMPAC 소식
45	우리들의 이야기	축하합니다

TRUST

신뢰로 함께 하는 사람들 - 최고의 콤비 파트너

일터에서 마음 맞는 선후배 혹은 동료의 있다는 것만큼 고마운 일이 있을까. 직장인들이 집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가 바로 일터이기에 회노애락을 함께 하는 파트너의 소중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면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때론 도움을 주기도 하며 동반 성장을 하는 사람들. 신뢰로 다져진 최고의 콤비 파트너를 찾아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01. **20년 동안 함께 일한 가족 같은 사이!**
SIMPAC홀딩스 이엔지부문 생산품질팀 공무Part 김한국 반장 & 신준 반장
02. **편안하고도 든든한 '오누이' 같은 선후배**
SIMPAC경영지원팀 권순영 대리 & 이해정 사원
03. **외모는 다르지만 마음은 하나!**
SIMPAC인더스트리 생산팀 산업기계Part 윤기중 반장 & 배오성 조장
04. **형님 먼저, 아우 먼저!**
SIMPAC메탈로이 1공장 전기로 황상용 선임 & 황원구 사원
05. **한결같은 마음과 열정으로**
SIMPAC메탈로이 2공장 공무반 우태보 주임 & 우레탄반 함광식 반장



20년 동안 함께 일한 가족 같은 사이!
SIMPAC홀딩스 이엔지부문 생산품질팀 공무Part 김한국 반장 & 신준 반장
“소통은 성과와 기쁨으로 돌아옵니다.”

때로는 직장 동료가 친구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되기도 한다. 업무상 호흡을 맞추며 매일 얼굴을 보다 보면 돌도 없는 '단짝'이 되는 것이다. SIMPAC홀딩스 이엔지부문 생산품질팀 공무Part 김한국 반장과 신준 반장은 회사에서도 알아주는 단짝 콤비다. 업무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신뢰와 친분을 이어가고 있는 김한국 반장과 신준 반장을 만나보자.





김한국 반장은 근무 연수로 보나, 나이로 따지나 신준 반장의 먼 선배뻘이다. 그럼에도 오랜 시간 현장에서 함께 했기에, 이제 누구보다 가까운 사이라고 한다. 외모에서 풍기는 이미지는 두 사람 모두 차분하고 인자한 느낌이다. 20년째 손발을 맞춰서일까. 미소 띤 얼굴과 차분한 성품까지 닮아 보인다. 한 자리에 앉아 서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쑥스러운 듯 멍쩍어 하면서도 유쾌하게 웃는 김한국 반장과 신준 반장. 그 모습에서 나이를 뛰어 넘는 진한 동료애가 느껴진다.

두 분이 맡은 업무는 무엇이며 언제부터 함께 일하게 되었나요?

김한국 반장(이하 김): 저는 올해 입사한 지 35년이 되었고 신 반장이 20년 전에 입사하면서 한 부서에서 같이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강산도 변할 세월 동안 함께 해왔으니 이제 가족 같은 동료죠. 저는 주로 철판 절단 및 이동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지게차를 이용해 자재 및 제품을 운반할 때 모든 공정작업이 원만히 돌아가도록 신 반장과 상의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신준 반장(이하 신): 저는 생산을 위한 모든 설비 및 보전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업하며 설비 쪽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투입되어 해결하고 있습니다.



두 분이 어떻게 호흡을 맞춰가고 있는지요?

신: 저는 입사 이후 김 반장님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담당하는 업무는 다르지만 업무 상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제가 맡은 설비 보전 업무에 있어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자상하고 명쾌하게 설명해주는 김 반장님께 자문을 많이 구하는 편입니다. 그만큼 신뢰가 깊고 제게 큰 의지가 되는 분이지요.

김: 모든 작업이 현장에서 이뤄지고 거대한 기계를 이용하는 작업이라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자재를 운반할 때면 신 반장과 저는 긴 말하지 않아도 척척 호흡이 맞는 편이지요. 신 반장은 전반적으로 설비 작업을 총괄하면서 관리 및 안전까지 세심하게 챙기고 있습니다.

서로 의견이 안 맞을 때는 어떻게 소통하며 해결하는지요?

김: 이견이 생기거나 부딪힐 일은 거의 없는 편입니다. 평소에도 업무 내용을 공유하고 대화를 많이 나누면서 일하고 있으니까요.

신: 상대방이 도움을 부탁하거나 시정을 요청할 때 최대한 맞춰주려 노력합니다. 설비 보전 업무는 즉시 처리되어야 하는 특성이 있는데 김 반장님과 20년 째 호흡을 맞춰온 터라 큰 애로사항 없이 신속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지요. 그래서 동료 간의 원활한 소통은 큰 성과와 기쁨으로 돌아온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김 반장님이 주로 다루는 크레인, 톱기계 등에 문제가 발생해서 바로 해결해낼 때면 일하는 기쁨과 보람을 느낍니다.

어느덧 하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각자의 다짐이나 바람을 들려주세요.

김: 선후배 간 소통을 계속하며 도움이 필요할 때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 일을 계속하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 저에게 신 반장은 든든한 협력자이자 형제 같은 멋진 동생입니다. 지금처럼 자랑스러운 SIMPAC인으로서 오래도록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신: SIMPAC인으로 일해 온 지 20년, 참으로 얻은 것이 많습니다. 열정적인 동료들 곁에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자극을 받으며 일해왔지요. 앞으로도 회사가 발전하는데 작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저의 목표를 향해 동행하는 김 반장님은 어쩌면 친구보다 더 가까운 존재가 아닐까요. 늘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하길 바랍니다.



Hope

자신의 이름으로 포부를 표현해주세요.

신 신세계에서 SIMPAC홀딩스 이엔지부문을 글로벌 리더로 만들 수 있는
준 준비된 자는, 바로 신준!

김 금같이 귀하고
한 한국 경제와 회사 발전에 보탬이 되는 SIMPAC인, 나아가
국 국가가 원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권순영 대리

이혜정 사원

편안하고도 든든한 ‘오누이’ 같은 선후배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며 손발을 맞춥니다”

SIMPAC 경영지원팀 권순영 대리 & 이혜정 사원

갓 입사한 여사원에게 남자 상사는 대부분 어려운 존재다. 상사와 부하직원, 남성과 여성 사이의 간극 등 공통점 보다는 차이점이 많은 사이. SIMPAC 경영지원팀 권순영 대리와 이혜정 사원도 그랬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만 5년 째 경영지원팀에서 호흡을 맞추고 있는 지금, 이들은 오누이처럼 허물없는 사이다. 자상한 큰 오빠 같은 권순영 대리와 애교 많은 막내 동생 같은 이혜정 사원을 만나보자.



PARTNER

FRIEND

TRUST

BEST

새로운 직장에 발을 들여놓은 이혜정 신입사원. 입사를 앞두고 설렌 나머지, 출근 날짜를 착각해 하루 일찍 회사에 갔을 때 경영지원팀 사무실에는 권순영 사원이 혼자 있었다. “출근일은 오늘이 아니라, 내일”이라는 말을 듣고 이혜정 사원은 민망함에 계단을 후다닥 뛰어 내려갔다. 이날의 해프닝은 권순영 대리의 인상에 깊이 남았다고 한다. 1년차 사원이던 권순영 대리와 갓 입사한 이혜정 사원은 그렇게 서로에게 강렬한 첫 인상을 남겼고, 지금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선후배 관계로 찰떡 호흡을 자랑하고 있다.

두 분이 맡은 업무는 무엇이며 언제부터 호흡을 맞춰 일하고 있는지요?

이혜정 사원(이하 이): 권순영 대리님을 도와 경영지원팀에서 인사 및 총무 업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2009년 입사 후 대리님에게서 기본적인 업무를 배우고 도움을 받으며 지금까지 함께 근무하고 있습니다.

권순영 대리(이하 권): 인사에 관한 기본 업무 및 급여, 근태 관리, 사내 행사 등의 업무를 두 사람이 주 도해 총괄하고 있습니다. 업무 특성상, 협업하는 일이 많아 호흡이 잘 맞아야 합니다. 윗분들이 자리를 비우면 불시에 대신 처리해야 할 일도 있거든요. 이혜정 사원은 신입으로 입사했지만 사리판단이 빨라 업무에 금세 적응했고, 지금은 모든 일을 척척 해내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선배로서, 후배로서 가장 든든하게 느껴지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권: 이 사원이 1년 후배지만 어쩔 때는 선배처럼 혼자서 일을 해냅니다. 업무에 있어서 선배에게 의지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알아서 처리해내는 편이거든요. 경영지원팀 업무가 행사나 의전이 많고 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이 많은데 선배가 시키는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주도적으로 융통성 있게 일을 처리합니다. 선배로서 더 이상 가르칠 게 없는 후배이니 기특하고 든든하죠.

이: 권 대리님은 겉으로는 부드러운 이미지이지만, 속으로는 꽤 강단있는 성격이십니다. 작년 11월, 회사 창립기념일 행사에 대리님이 사회를 맡았는데, 행사를 앞두고 긴장이 되었는데 저에게 연습을 하자고 하며 철저히 준비하시더라고요. 정작 무대에서 사회를 볼 때에는 처음 하는 것이 맞나 싶을 정도로 열정적으로, 매끄럽게 진행을 마치셨습니다. 이렇게 서로 도와가며 무사히 행사를 마칠 때면 대리님과 제가 호흡이 참 잘 맞는다고 느낍니다.

함께 일하면서 생긴 에피소드를 들려주세요.

권: 이혜정 사원이 신입이던 시절, 대표이사님 의전을 수행하는 중에 유자차를 타는데 제가 거들어 주다가 유자차를 찾던 위에 흘린 적이 있었어요. 이 사원이 특유의 당당한 목소리로 “차를 처음 타 보세요?”하는데 속으로 깜짝 놀랐지요. 처음엔 신입사원이 참 당돌하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이 사원은 농담으로 얘기한 거였고, 중요한 의전이다 보니 실수 없이 깔끔하게 처리하고 싶은 마음에 한 말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죠.



이: 대리님은 허물없는 친구처럼 느껴질 때가 많아요. 저와 나이 차는 나지만 입사 연차는 1년이다 보니 격의가 없는 편입니다. 저는 장녀라서 오빠가 없는데 아무래도 회사에서 대리님과 함께 하는 시간이 많으니 큰 오빠처럼 느껴져 업무적인 것뿐 아니라 개인적인 일도 털어놓게 됩니다. 반면에 제가 큰 잘못을 하면 딱 집어서 충고해 주십니다. 친하더라도 공과 사를 확실하게 구분해 주시니 저도 정신을 바짝 차려 일하게 되는 것 같아 좋아요.

두 사람의 업무 스타일은 어떤지요, 서로에게 배울 점이 있다면요?

권: 이해정 사원은 사려 깊고 무엇보다 제게 없는 당찬 면모가 있습니다. 성격이나 성향이 저와는 많이 다르지만 업무적으로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니까 조화가 잘 이뤄지는 것 같습니다. 정해진 틀에 따라 움직이는 조직사회에서 이 사원만의 당당한 면모는 신선한 에너지가 되고 여러모로 장점이 될 때가 많습니다. 후배지만 함께 일하며 그런 점을 많이 배웠고 생각을 전환하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이: 대리님은 마음을 열고 후배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후배들도 부담 없이 대리님께 얘기하는 편이고요. 가까이 하기 어려운 상사라면 말을 꺼내기 쉽지 않을 텐데 대리님은 늘 열린 마음으로 후배들에게 먼저 다가가 의견을 물으시는 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회식 때 술 한 잔하고 난 뒤의 대리님은 여자들 못지 않은 수다쟁이랍니다. 그래서 '왕언니'라는 별명도 있지요. (웃음)

서로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권: 경영지원팀의 업무 특성상 이타적인 마음가짐은 필수입니다. 이 사원은 지금까지 늘 그런 마음으로 다른 직원들을 배려하며 열정적으로 일해 왔습니다. 그런 이 사원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이제 자신을 위해서도 투자하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역량을 더 키우고, 본인이 노력한 만큼 인정받는 사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그동안 대리님께 업무적으로, 또 인생 선배로서도 많이 배웠습니다. 입사 이후 제가 회사에 적응할 때까지 많은 도움을 받아서 참 고마운 마음입니다. 앞으로도 '왕언니'처럼 때론 다정하게, 때론 엄격하게 후배들을 이끌어주면 좋겠네요. 참, 대리님에게 예쁜 아기가 생겼는데 이제 아빠로서도 화목한 가정 꾸러가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서로에 대한 바람을 표현해주세요.

권 권합니다.
순 순수한 이해정 사원에게
영 영원한 우정을!

이 이제부터 앞으로도,
해 해가 지날수록
정 정이 돈독해지는 파트너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외모는 다르지만 마음은 하나! “끊임없는 소통으로 신뢰가 두터워집니다”

SIMPAC인더스트리 생산팀 산업기계Part
윤기중 반장 & 배오성 조장

말을 나누지 않아도, 얼굴만 보고 있어도 기분 좋아지는 사람이 있다. SIMPAC인더스트리 생산팀 산업기계Part 윤기중 반장과 배오성 조장은 서로에게 그런 존재다. 눈빛만 봐도 서로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사이. 그래서 이들에겐 '콤비'라는 타이틀이 어울린다. 주거니 받거니 하며 서로를 챙기는, 오랜 친구 같은 윤기중 반장과 배오성 조장을 만났다.



배오성 조장

윤기중 반장



싱글벙글 만면에 기분 좋은 웃음을 띠고 있는 배오성 조장과 근엄해 보이는 외모 뒤에 따뜻한 마음을 지닌 윤기중 반장. 두 사람은 서로 상반된 이미지를 가졌지만, 오랜 시간 동료로 함께 일하며 그 누구보다 두터운 신뢰와 친분을 쌓아왔다. 하나의 프로젝트를 위해 밤낮 없이 일하면서 동료애가 더욱 깊어졌다는 이들. 어느새 일터에서도 인정받는 콤비가 된 두 사람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떠올리며 웃음꽃을 피웠다. 선후배이면서 동시에 막역한 친구같은 이들의 유쾌한 이야기를 들어보자.

맡고 있는 업무와 함께 일하게 된 계기를 말씀해주세요.

배오성 조장(이하 배) : 저희는 산업기계를 만들어 현지에 설치하고 담당자 교육 및 A/S까지 전반적으로 관리합니다. SIMPAC인더스트리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도 진출해 있어 출장이 꽤 많은 편인데요, 윤 반장님과는 2004년 해외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하며 호흡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의 한 타이어 회사가 운영하는 태국공장에 설치할 공정기계를 제작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때 만든 공정기계는 이후에 중국, 필리핀, 베트남 등으로도 수출하게 되었지요.

윤기중 반장(이하 윤) : 현재 우리 팀은 한국타이어의 일을 맡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주로 기계 조립을 담당하고 있지만 배 조장의 이야기처럼 업무상 현지 출장이 많아 영어, 일본어 외에도 현지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업무 처리하랴, 외국어 공부하랴, 힘은 들지만 그만큼 자부심도 큼니다.

두 분의 호흡이 잘 맞는 비결은 무엇인지요?

배 : 서로의 마음을 먼저 이해하려 하고, 어려운 점은 대화를 통해 푸는 것이 비결이라면 비결입니다. 처음 일할 때는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각자의 사고방식과 업무 스타일이 달라 맞추기가 쉽지 않았죠. 하지만 업무상 치열하게 다투게 되는 것은 결국 둘다 회사의 발전을 바라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는 길은 하나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선배의 경험과 후배의 아이디어가 녹아들며 조금씩 맞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윤 : 배 조장은 이해가 무척 빠릅니다. 한 마디 하면 무슨 뜻인지 금방 알아 듣고 잘 따라오는 것이 선배로서 고맙지요. 어렵고 힘든 일도 거절하는 법이 없습니다. 사소한 것 같지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업무가 정밀도를 요구하는 일이라 서류작업이 많은데 배 조장은 싫은 표정 하나 없이 항상 웃으며 긍정적으로 일합니다. 덕분에 저도 덩달아 힘이 나고 기분이 좋아지네요.



가장 잘 통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배 : 반장님은 일방적으로 지시하기 보다는 상대방의 의향을 먼저 물어보고 신중히 결정하는 편이십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는 것이지요. 지시나 명령을 하기 보다는 의견을 구하는 모습이 후배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쌍방향으로 소통이



되니 일도 더욱 잘 풀리는 것 같고요.

윤 : 일을 하다보면 어떤 것이 옳은 방향인지 감을 잡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서로의 의견을 절충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고자 합니다. 배 조장과는 7년의 나이 차이가 있지만 둘 다 신중한 성격이라 차분하게 대화를 나누며 해결하는 방법이 잘 통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고의 콤비가 되기 위한 다짐과 각오를 들려주세요.



윤 : 최근 외국 출장 중에 로밍이 안 되는 바람에 전화가 불통이 된 적이 있습니다. 혼자 타국에 있는데 누구와도 연락이 안 되니 외롭고 공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족이 보고 싶고 동료가 생각나면서 내게 진정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 가면 회사 동료, 선후배에게 더욱 잘하고, 가족에게도 좋은 가장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그 마음이 변치 않도록 노력하며 배 조장님과 지금의 관계를 잘 이어나가면 좋겠습니다.



배 : 최고의 리더 뒤에는 그를 뒷받침할 참모가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믿음직한 참모로서 윤 반장님과 함께 다음 세대까지 기업의 좋은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SIMPAC인이 되겠습니다.

To You

자신의 이름으로 서로에 대한 바람을 표현해주세요.

- | | |
|----------|--------------------------------------|
| 배 | 배수진을 치고 |
| 오 | 오직 한 길 |
| 성 | 성장과 성공을 일구는 SIMPAC인더스트리의 동반자로 나아갑시다! |
| 윤 | 윤택한 삶을 원한다면, |
| 기 | 기본과 원칙을 준수하는 SIMPAC인더스트리의 정신을 |
| 중 | 중심으로 최고의 기술과 품질을 추구하는 기업의 일원이 됩시다! |





황상용 선임

황원구 사원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함께 합니다”

SIMPAC메탈로이 1공장 전기로 황상용 선임 & 황원구 사원

SIMPAC메탈로이에 남다른 선후배 사이가 있다고 해서 멀리 포항에 찾아가 보았다. 한여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날, 1공장에서 만난 전기로 황상용 선임과 황원구 사원은 격의 없는 선후배의 모습, 그대로였다. 털털하고 사람 좋은 미소를 짓는 두 사람을 만난 순간, 더위가 시원하게 날아가는 기분이었다.

같은 성 씨라서 그런 것일까. 두 사람의 외모는 많이 다르지만 형님, 아우하며 서로 위해주는 모습이 가족처럼 편안해 보인다. 입사 3년차인 황원구 사원은 처음 SIMPAC메탈로이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 편안하게 대해주는 황상용 선임 덕분에 회사 생활에 차츰 적응할 수 있었다고 한다. 신입사원에게는 옆에서 잘 챙겨주고 끌어주는 선배가 매우 고마운 존재일 것이다. 과묵하면서도 세심하게 챙겨주는 황상용 선임과 그가 이끄는 대로 열심히 따라가는 황원구 사원. 파트너로서 두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 궁금해졌다.



두 분이 맡은 업무는 무엇이며 어떻게 호흡을 맞추고 있나요?



황원구 사원(이하 사원) : 올해 1월부터 전기로에서 근무하며 황 선임님과 호흡을 맞추고 있습니다. 입사 3년 차라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자상하게 이끌어 주고 챙겨주고 계시지요.



황상용 선임(이하 선임) : 우리는 전기로 출탕과 후처리 작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출탕을 할 때면 쇳물이 튀어서 화상 입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서로 호흡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자 작업하는 거리는 떨어져 있지만, 세심하게 처리해야 하는 일들이라 특별히 안전에 유의하면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잘 통한다고 느끼는 순간은 언제인가요?



선임 : 같이 출탕 작업을 할 때, 한 사람은 앞에서 나오는 쇳물을 분리하고, 한 사람은 뒤에서 쇳물이 잘 나오게 합니다. 메탈과 불순물을 분리하는 이 작업을 2인 1조로 하는데, 두 사람의 호흡이 잘 맞아야 안전사고 없이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습니다. 둘 다 꼼꼼하게 일을 처리하는 편이라, 작업할 때 손발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사원 : 모래 길에 쇳물을 받아내는데 모래 길이 부실하거나 이상이 생겨 쇳물이 넘치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업무에 임하고 있지요. 현장에서는 늘 긴장하게 되는데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챙겨주는 선임님 덕에 믿고 의지할 수 있어 좋습니다.

함께 일하면서 생긴 에피소드가 있다면 들려주세요.



선임 : 쇳물의 온도는 무려 1400도입니다. 때문에 현장은 한증막에 있는 듯 무덥습니다. 그래서 출탕할 때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 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곤 합니다. 출탕 후 후처리 과정 동안 잠시 한숨을 돌릴 수 있고요. 동료애는 이런 힘든 작업 과정에서 생기는 게 아닐까 합니다. 같은 작업을 하다 보니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려는 마음이 우러나오는 것 같아요. 특히 황 사원은 현장에서 가벼운 농담으로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드는 재주가 있습니다. 힘든 작업 환경 속에서 웃으면서 일할 수 있어 큰 활력소가 되지요.

업무상 애로사항이
있다면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하나요?

서로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들려주세요.

사원 : 3교대로 근무하고 있는데 2교를 마치면 밤 10시에 끝납니다. 몸도 피곤하지만 배가 많이 고파서 시간인데 맛집을 많이 아는 선임님이 이곳저곳 데려가 맛있는 것을 사주십니다. 일 끝나고 출출한 배를 맛있는 음식으로 채우고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는 그 시간이 가장 즐겁고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선임 : 저는 업무가 잘 안 풀릴 때면 황 사원과 대화를 많이 합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차분한 대화를 통해 최선의 방법을 함께 찾아갑니다. 그 덕분인지 일하면서 의견 충돌이 생기거나 그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적은 없습니다. 다만, 현장의 모든 직원들이 안전하게 작업에 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평소에 안전 의식을 철저히 하는 것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지요.

사원 : 선임님과 저는 전기로 D조에 속해있는데 12명의 조원들 모두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업무뿐 아니라 개인적인 일도 털어놓을 만큼 다들 친하게 지내고 있지요. 신경 쓰는 부분이 있다면 체력 관리입니다. 예를 들어, 삼절을 하면 허리를 계속 숙이기 때문에 몸이 아프고 근육이 쑤시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본인이 스스로 몸 관리를 해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 역시 평소 술을 자제하고 운동을 하면서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선임 : 모든 일이 그렇듯 열심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황 사원이 더욱 열심히 노력해서 어디서든 필요한 사람, 어떤 일이든 알아서 척척 해내는 만능 사원이 되길 바랍니다.

사원 : 제가 원래 형이 없는데, 회사에서 든든한 형님이 생긴 것 같아 좋습니다. 앞으로도 지금과 같은 돈독한 사이를 유지하며 회사의 발전을 위해 합심하여 일에 매진했으면 합니다. 가정에서는 모범적인 가장으로, 회사에서는 든든한 직원으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자신의포부를 이름으로 표현해주세요.

황 황야에 홀로 선 사나이처럼
상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용 용감한 SIMPAC인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라는 최영 장군님 말씀처럼
원 원대한 꿈을 품고
구 구만리를 질주하는 사원이 되겠습니다!

Hope

한결같은 마음과 열정으로

“마음이 잘 통해
큰 의지가 됩니다”

SIMPAC메탈로이 2공장
공무반 우태보 주임 & 우레탄반 함광식 반장

공동점 보다는 다른 점이 더 많아 보이는 사이. 외모와 나이, 입사 연차 등 많은 것이 다르기에 잘 어울릴까 의문이 들기도 하는 사람들. 그럼에도 잘 통하는 직장 동료들이 있다. SIMPAC메탈로이 2공장 공무반 우태보 주임과 우레탄반 함광식 반장이 그런 사이다. 오랫동안 직장 동료로 호흡을 맞춰 왔기에 이제 누구보다 서로의 마음을 잘 읽는다. 그렇기에 두 사람은 최고의 동료이자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함광식 반장

우태보 주임

7월의 끝자락, 휴가를 떠난 이들도 있지만 무더위에 구슬땀을 흘리는 이들이 아직은 더 많다. 광활한 포항철강산업단지에 당당히 서있는 SIMPAC메탈로이에서 공무원 우태보 주임과 우레탄반 함광식 반장을 만났다. 질문을 할 때면 쑥스러워 하면서도 이런 저런 얘기를 풀어내는 모습에서 17년을 함께 해온 이들의 연륜을 느낄 수 있었다.

두 분이 맡고 있는 업무는 무엇인가요?

우태보 주임(이하 우) : 저는 전기 수전부터 내선 콘트롤까지 전반적인 정비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전기가 없으면 어떤 작업장도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제 업무는 공장의 전 부서와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비시간이 길어지면 기계가 멈추고, 작업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고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평소에 미리 점검을 하는 편이지요.

함광식 반장(이하 함) : 우태보 주임님은 2공장의 맥가이버로 통해요. (웃음) 저는 롤 코팅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롤 코팅은, 고무 성분으로 코팅하는 부서와 우레탄으로 코팅하는 부서가 있는데 저는 실리콘 재질과 비슷한 우레탄으로 코팅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잘 통한다고 느낀 적은 언제인가요?

우 : 제가 1997년 2공장에 경력직으로 입사했을 당시 함 반장님은 사원이었습니다. 그러니 벌써 17년째 호흡을 맞추고 있는 것이죠. 제가 담당하는 업무는 작업 중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정비해야 하는 일들이 많은데, 함 반장님이 작업과 관련하여 많은 것을 잘 알고 있어, 함께 일할 때 매우 수월합니다. 서로 말하지 않아도 어떤 점이 문제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알 정도이니까요.

함 : 기계는 전기로 돌아가기 때문에 간혹 고장이 날 수 있습니다. 우 주임님은 고장이 나기 전에 예방 차원에서 미리미리 설비를 점검하고 조치를 취합니다. 작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런 모습이 굉장히 든든하고 고맙죠. 매사에 꼼꼼하고 완벽하게 정비를 해주는 덕분에 작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습니다.

함께 일하면서 좋은 점, 상대방에게는 어떤 장점이 있는지요?

우 : 부서마다 개별 설비가 많이 갖춰져 있어 작업 시 동료간 화합이 매우 중요합니다. 함 반장님과는 오랫동안 함께 해서인지 마음이 잘 통하고 업무적으로도 협업이 잘 되는 것이 큰 강점입니다. 또 반장님은 일이 안 풀리거나 어려운 일이 있어도 좀처럼 화를 내지 않는 차분한 성격이신데요, 그래서 더욱 믿음이 가고, 큰 의지가 됩니다.

함 : 우 주임님도 차분하고, 늘 한결 같은 성격입니다. 정비 업무 특성상 매우 꼼꼼하고 손재주가 좋습니다. 어찌 보면 저와 성격이나 업무 스타일이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외국에서 엔지니어가 왔는데 직접 시운전을 하면서 세세하고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늘도 설비에 문제가 생겼는데, 바로 달려 와서 차분히 설명하고 처리해 줘서 가뿐히 해결되었습니다. 소통이 잘 되는 것이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업무상 애로사항이 있다면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하나요?

우 : 일을 즐겁게 하고자 마음먹으면 스트레스도 조절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늘 활력을 유지하는 비결을 꼽자면 등산입니다. 10년 쯤 전국의 산을 다니고 있는데 특히 강원도의 깊은 산골이나 오지를 주로 다닙니다. 뭔가 하나에 몰두하면 열정적으로 빠지는 스타일인데 산을 오르내리면서 체력을 기를 수 있고, 무엇보다 심신이 맑아지는 느낌이라 더 없는 희열을 느끼고 있습니다.

함 : 우 주임님 말대로 어찌 보면 스트레스도 결국 본인이 만드는 것입니다. 즐겁게 일하면 감사할 일들만 생기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아내와 여행을 많이 다닙니다. 남해, 거제도 등 대자연이 펼쳐진 아름다운 곳에 있으면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입니다. 부부가 함께 하는 여행은 그 자체로 힐링이 되거든요.

서로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들려주세요.

우 : 이제까지 해 온 것처럼 자랑스러운 SIMPAC인으로, 또 절친한 동료로 함께 하기 바랍니다. 멀리서 보나, 가까이서 보나 함 반장님은 매사 성실하고 그만큼 성과도 올리는 사람입니다. 지금처럼 건강하게 회사 생활 잘하고, 의 좋게 잘 지내도록 합시다.

함 :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인 것 같습니다. 주임님 건강 잘 챙기시고, 가족들도 모두 건강하기 바랍니다. 우리 둘 다 회사에 몸담고 있으니 회사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한 마음으로 노력하면서 늘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서로에 대한 바람을 표현해주세요.

우 우리가	함 함께하면서
태 태어나면서	광 광대역 같은 넓은 마음으로
보 보통 사~이가?(경상도 버전)	식 식을 줄 모르는 열정과 패기로 전진하세요!

To You

TRUST

신뢰가 가진 힘을 아십니까?

비용을 줄이고 수익은 높이는 또 하나의 경쟁력

글_자유기고가 배나영

세계적인 인적자원관리 컨설팅 회사, 왓슨 와이어트는 미국 근로자 1만 2,750명을 대상으로 사상 최대 규모의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르면, 신뢰도가 높은 기업이 신뢰도가 낮은 기업보다 세 배 가까이 많은 주주 수익을 창출하고 있었습니다. 신뢰도가 곧 성과와 연결된다는 의미지요.

‘신뢰’는 윤리적이고 관념적인 무형의 것으로 생각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많은 연구결과들은 신뢰가 곧 성과 등의 유형 자산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업이 신뢰를 얻으면 동시에 이익을 얻고 신뢰를 잃게 되면 손해가 발생합니다. 때문에 조직차원에서, 그리고 개인차원에서 신뢰라는 경쟁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뢰를 통해 경쟁우위를 점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기업의 신뢰우위는 곧 경쟁우위

포드햄 대학 기업정신센터의 설립이사인 로버트 헐리 교수는 “신뢰우위는 사람들에게 확신을 심어주고 언어내는 경쟁우위”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업이 신뢰우위를 획득하면 사업의 모든 측면에서 수익성이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기업을 신뢰하는 고객들이 기꺼이 비용을 지급하고, 입소문을 내며 서비스를 재이용합니다. 기업의 직원들은 그들을 신뢰하는 납품업체와 전화 한 통으로 일을 처리할 수도 있고요.”

에델만 신뢰도 지표조사 결과를 살펴봅시다. 고객이 기업을 신뢰하는 경우, 고객의 91%는 제품을 구매하고, 75%는 지인에게 소개하며, 55%는 비용을 더 들여서라도 거래를 합니다. 고객의 42%는 호의적인 사용 후기를 인터넷에 올리고 26%는 기업의 주식을 삽니다.

만약 고객이 기업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고객 중 77%는 제품을 구매하지 않으려 하고, 72%는 친구나 동료 앞에서 비난을 합니다. 34%는 부정적인 사용 후기를 인터넷에 올리고 17%는 주식을 매각합니다.

신뢰하지 않으면 업무비용이 두 배?

컬럼비아 경영대학원 산하 데밍 품질경영센터의 소장 존 휘트니는 ‘불신은 업무비용을 두 배로 늘린다’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서로를 의심하는 분위기 속에서는 불신이 조장되고, 동기와 팀워크가 저하되며, 더불어 실적도 떨어집니다. 서로의 능력에 대한 의혹이 업무 처리 속도를 늦추는 것이지요.

에델만도 비슷한 조사를 했습니다. 한국과 미국, 일본, 세 국가의 자동차 거래를 두고 판매자와 구매자 간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신뢰하기 어려운 판매자와 거래할 때의 비용은 신뢰가 두터운 판매자와 거래할 때 보다 다섯 배나 높았습니다. 신뢰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실증적 증거입니다. 게다가 신뢰가 막대한 판매자와 거래하는 경우, 대면 소통에 걸리는 시간이 두 배나 늘어났습니다. 소통과 협상, 합의에 이르기까지 더 많은 시간과 자원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또한 신뢰가 부족하면 최대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자연스럽게 절차와 규정이 늘어나고, 각종 규정이 이행되는지 확인하고 관리하면서 막대한 비용이 발생합니다. 연구개발과 직원교육, 복지장려책 등에 투자할 수 있는 자본이 신뢰비용으로 소모되는 셈이지요.



당신은 신뢰받는 리더입니까?

최근 실시된 연구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중 80%는 기업의 경영자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직장인들의 절반 가량은 자신의 상사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는 결과도 나왔지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우리 기업들은 어떨까요? 직장에서 신뢰받는 상사가 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요건입니다. 신뢰받는 상사와 함께 일하는 부하직원은 행복하지요. 자연스럽게 의욕이 생기고 팀원들 간의 강력한 연대감 속에서 예상치 못한 성과가 발생합니다. 구성원 전체가 무언가 이뤄냈다는 성취감을 갖게 됩니다.

신뢰는 리더가 갖춰야 할 덕목일 뿐 아니라 조직의 빠른 성과와 견고한 수익을 가져오는 실질적인 경쟁력입니다. 신뢰를 받는 리더는 조직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갖게 되며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습니다. 신뢰받는 관리자는 생산성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팀원들의 헌신을 강화합니다. 신뢰받는 영업사원은 거래를 늘릴 수 있고, 실적도 증대시키겠지요. 이처럼 믿음과 신뢰가 있으면 대개의 경우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기업이나 개인이 신뢰를 획득할 수 있을까요?

신뢰를 얻는 여덟 가지 방법

명료함, 배려, 성품, 역량, 헌신, 관계성, 기여, 일관성

조직문화 컨설턴트이자 비즈니스 전략가인 데이비드 호사저는 세계 최고의 리더들이 어떻게 신뢰를 얻는지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덟 가지 조건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명료함, 배려, 성품, 역량, 헌신, 관계성, 기여, 일관성입니다.

사람들은 분명한 것을 신뢰합니다. 명료한 비전이 있어야 단합이 되고, 동기와 사기가 진작되며, 의욕이 고취됩니다. 명확한 커뮤니케이션 속에 동료 간 신뢰가 쌓이며, 직원의 만족도도 높아지지요. 그러니 숨김없이 명료하게 사실을 밝히는 사람이 신뢰를 얻게 됩니다.

또한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신뢰를 낳습니다. 경청과 인정, 관심, 도움을 습관화하여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는 영리한 영업 전략보다도 효과적입니다.

성품도 신뢰의 조건입니다. 모두들 성실하고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을 신뢰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성품과 역량의 균형이 잘 맞춰져야 합니다. 일을 제대로 해낼 역량을 갖춰야만 성품이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마케팅 리서치 업체인 마케팅 세르파에 따르면 사람들의 86.9%는 비평가의 평가보다 지인의 추천을 더 신뢰합니다. 사람들은 되도록 지인들과 일하려고 합니다. 관계성이 강해질 때 참여와 협력이 이루어지고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며 신뢰가 쌓입니다.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앞서 말한 모든 요소들이 중요합니다. 어느 것 하나 꾸준히 이뤄지지 않으면 신뢰는 허물어지기 마련이거든요. 기본 좋을 때 온화한 성품은 성품이 아니고, 잘나갈 때만 하는 헌신도 헌신이 아닙니다. 반면 변함없이 명확한 태도는 신뢰의 메시지이고, 변함없는 배려는 신뢰할 수



T
R
U
S
T

있는 자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라는 건물을 지탱하는 마지막 기둥은 일관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곧 브랜드에 대한 신뢰 구축을 위한 최선책입니다.

신뢰로 이어지는 지름길은 없습니다. 사소한 것부터 충실히 실천해야 합니다. 신뢰로 얻게 되는 엄청난 기회도 없습니다. 대신 수많은 작은 기회들이 스쳐갑니다.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는 사람에게 는 기회가 주어지지요. 한결같은 사람들이 신뢰를 얻고 영향력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늘 일관된 지침을 전달하는 관리자가 팀을 단합시키고, 변함없는 고객 서비스가 브랜드 충성도를 높이며, 창의적 연구개발에 매진하는 기업이 혁신을 실현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려면?

“명성을 쌓는 데는 20년이 걸리지만 명성을 무너뜨리는 데는 5분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워렌 버핏의 말을 기억하십니까? 요즘같이 스피드를 중시하는 세상에서 명성을 쌓는데 20년까지 걸리진 않겠지만,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은 변함없이 한순간일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현재 신뢰를 잃고 회복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더 많이 노력해야 합니다.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다음 재빨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모든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공감을 표하며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법이나 보상책에 따라 빠른 조치를 취한 다음 신뢰할 수 있는 명료한 비전을 세우고 공유해야 합니다.

신뢰를 잃은 기업이나 개인은 성공을 지속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루 빨리 신뢰를 회복해야 하지만 지나치게 서두르다가는 문제가 더 악화될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사소한 약속을 만들고 실천하는 일을 반복하면서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아가야 합니다. 이는 확실한 비즈니스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이든 아니든 신뢰가 무너진 상황이라면 사소한 약속들부터 지켜나감으로써 일관되고 진실한 태도를 보여주며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약속한 것보다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일을 신속히 처리하는 등 평소보다 나은 것을 제공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신뢰를 주는 강한 인상을 남기고 좋은 입소문을 내는 일종의 홍보도 필요합니다. 오후에 제안서를 제출하기로 했다면 두세 시간 일찍 일을 처리할 수도 있겠지요. 기대 이상의 만족감을 주는 것이 바로 신뢰를 다시 쌓는 확실한 첫걸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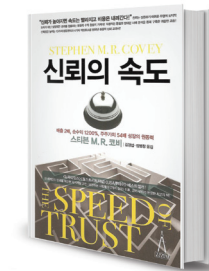


신뢰의 비법을 담은 책 BOOK 3



〈신뢰가 이긴다〉 by 데이비드 호사저, 알기

이 책의 핵심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위대한 리더나 지속성장하는 조직의 성공비결은 ‘신뢰’라는 것입니다. 호사저 교수는 수많은 연구를 통해서 실제로 신뢰가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고, 조직 차원에서 신뢰우위의 혜택을 증명해 냈습니다. 조직에 신뢰가 부족할 때는 일을 진행하는데 있어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관계자들의 충성도가 떨어집니다. 반면 신뢰가 두터울 때는 혁신, 창의성, 자율, 사기, 생산성이 향상된다는 결과를 내놓습니다. 그러니 신뢰는 리더가 갖춰야 할 덕목일 뿐만 아니라 조직의 빠른 성과와 견고한 수익을 가져오는 실질적인 비결입니다. 호사저 교수는 이 책에서 신뢰우위를 획득하는 여덟 가지 원칙을 소개합니다. 글로벌 시대에 영향력 있는 조직과 개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실용적인 팁이 담겨있습니다.



〈신뢰의 속도〉 by 스티븐 M. R. 코비, 김영사

신뢰 수준이 낮아지면 속도가 느려지고 비용은 올라갑니다. 신뢰 수준이 높아지면 속도가 빨라지고 비용은 내려갑니다. 이 책은 신뢰의 수준이 문제 해결 속도와 정비례한다는 놀라운 사실을 들려줍니다. 신뢰가 주는 일처리 속도에 대해 분석하면서 신뢰가 경제적인 성과를 이끄는 핵심가치라는 사실을 여러 기업의 사례를 통해 설명하지요. 그리고 신뢰도를 어떻게 높일 수 있는지, 그 정도와 속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신뢰가 어떻게 조직의 성과와 매출을 높이는지, 승진의 결정적인 요소로 신뢰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직장상사나 부하, 동료, 부부와 부모 사이에 신뢰가 어떠한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합니다.



〈신뢰의 기술〉 by 데이비드 마이스터 · 찰스 그린 · 로버트 갬포드, 해냄출판사

이 책에서는 신뢰의 핵심을 ‘관계’라고 설정합니다. 신뢰는 상호적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상대방이 자기 역할을 해줄 것이며 서로의 관계가 공통 가치와 원칙으로 이루어졌다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배려입니다. 상대방의 이익을 내 이익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 책은 신뢰받는 기업이 되려면 고객으로 인한 이익보다 고객 자체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야 결과적으로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에서 장기적인 상호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영업의 베테랑부터 열정의 신입사원까지,

잘 맞는 톱니바퀴가 되어 인들도 전진!

우리 팀을 소개합니다 - SIMPAC인더스트리 영업1팀

어느덧 2014년의 절반이 지나고 하반기로 접어드는 7월의 첫 주. 인천 서구 가좌로에 위치한 SIMPAC인더스트리를 찾았다. 시원하게 비가 내리는 오후에 만난 이들은 연륜의 선배와 참신한 후배들로 구성된 영업1팀. 한 자리에 모인 이들은 홍종범 팀장을 비롯, 박용성 부장, 고인철 차장, 김용완 사원, 윤희철 사원이다.



영업을 담당하는 여느 부서가 그렇듯 SIMPAC인더스트리의 영업1팀은 기존 고객사와의 관계를 유지하거나 신규 고객사를 발굴하며 고객사와 직접 대면하는 일을 맡고 있다. 특히 고객의 니즈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여 SIMPAC인더스트리가 제작하는 기계와 설비들이 최상의 서비스와 함께 전달되도록 하고 있다.

“영업1팀은 그동안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사 네트워크를 관리하며 니즈에 부응할 수 있는 SIMPAC인더스트리의 고성능, 고강도, 고정도 설비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만족을 이끌어내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마음으로 정진하고 있다는 영업1팀의 홍종범 팀장은 또 “회사의 이윤을 창출하는 최전선에 있기에 더욱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그 무게만큼 경쟁 입찰에서 SIMPAC인더스트리가 선정될 때면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어느 분야에서든 영업이란 한 번에 쉽게 이뤄지는 일이 아니다. 그 중에서도 산업기계는 복잡하고 어려운 전문분야이고 고객의 요구사항에 따라 수많은 변수가 존재하기에 언제나 흔들리지 않는 독심과 인내가 요구된다. 약 30년간 회사에 몸담아온

홍종범 팀장과 영업만 20년째인 박용성 부장을 비롯, 전문지식을 가진 직원들이 한데 모인 영업1팀은 연륜과 새로움이 공존하는 부서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다.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일하는 그들만의 비결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영업의 제 1비결은 기계에 대해 철저히 아는 것

고인철 차장은 “생산 부서에서 20년간 근무하다가 올해 6월에 영업1팀에 왔습니다.”라면서 “생산은 정해진 계획과 일정에 의해 완수하는 것이 목적인데 영업은 정해지지 않은 것을 스스로 찾아 만들어내는 업무”라고 설명했다. “공들여 견적서를 만들고 여러 가지 노력 끝에 주문을 받는 기쁨이 상당합니다. 팀장님 말씀처럼 영업은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일이라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설계와 생산 분야에서 오랫동안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영업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하고 싶습니다.”

윤희철 사원은 “설계팀 도면 업무를 주로 하다가 영업 부서에 왔는데 배울 점이 참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라고 말했다. 올해 6월에 입사한 김용완 사원은 “우리가 하는 일이 기술영업이다 보



어떠한 모습의 SIMPAC인이 되고 싶나요?

홍종범 팀장

“국내를 넘어 해외시장으로 뻗어 나가는데 일조하는 SIMPAC인이 되겠습니다.”

박용성 부장

“회사의 오랜 역사와 영광을 잇도록 노력하는 SIMPAC인이 될 것입니다.”

고인철 차장

“고객의 신뢰를 받는 SIMPAC인이 되겠습니다.”

윤희철 사원

“즐거운 일터를 만들어가는 SIMPAC인이 되겠습니다.”

김용완 사원

“늘 배우고 공부하며 성장하는 SIMPAC인이 될 것입니다.”

니 기계, 무역, 운송, 회계 등 전 분야를 종합적으로 알아야 합니다.”라면서 “선배님들에게 많이 배우고 익혀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겠다는 목표가 생겼습니다.”라고 말했다.

박용성 부장은 20년을 영업부서에서 근무한 ‘영업 베테랑’이다. 그는 성공적인 영업을 이뤄내기 위해서 먼저 기계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고 말한다. “우리의 업무가 기계 영업이니만큼 기계에 대해 철저히 알아야 고객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영업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영업1팀은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약 한 달간 현장 실습을 통해 기계가 만들어지는 전 과정을 직접 보고 배운 뒤에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고객과의 미팅을 진행할 때에도 사원을 참석시켜 어떻게 대화를 이어나가고 응대하는 지 현장에서 배우도록 한다.

자상하게 이끄는 선배와 열정을 다하는 후배, ‘소리 없이 강한 팀’

영업의 베테랑부터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은 팀원, 갓 입사한 신입사원까지. 여러 가지 색깔을 가진 영업1팀은 2014년 하반기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힘차게 달리겠다고 다짐했다. 구성원 각자의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최고의 실적을 창출하는

영업1팀이 되겠다는 것이다. 홍종범 팀장은 팀원들에게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요즘 사회 전반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의욕을 갖고 열심히 하려는 팀원들이 고마울 따름입니다. 올해 상반기 실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지만 하반기에는 좀 더 열심히 뛰어서 목표를 달성했으면 합니다. 영업 부서에 있어 목표 달성은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힘들어도 인내심을 갖고 목표를 향해 힘차게 달려갑시다.”

고인철 차장은 “영업1팀의 중심축 역할을 해내며 하반기 매출 달성에 일조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했다. “선임자로서 술선수범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언제나 신입사원의 자세로 열정을 다해 도전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김용완 사원은 “영업1팀은 기계, 생산, 영업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팀”이라고 설명한다. “그 덕분에 신입사원인 제가 여러 분야에 걸쳐 배울 수 있어 큰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많이 배우고 열심히 공부하여 하반기 목표 달성에 미약하나마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자상하게 이끌어 주는 선배와 선배의 가르침에 따라 배우는 후배. 다양한 팀원들이 어우러져 잘 맞는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는 SIMPAC인더스트리 영업1팀의 내일이 어떨지 사뭇 기대된다.



“영업1팀은 그동안 축적된 영업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사 네트워크를 관리하며 니즈에 부응할 수 있는 SIMPAC인더스트리의 설비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만족을 이끌어 내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저희 꿈을 들어보실래요?”

SIMPAC의 미래를 이끌어 갈 신입사원들

아직 서툴고 미숙하지만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 바로 ‘신입사원’이다. 그들은 젊기에 무엇이든 배우려는 의지와 패기가 있다. 올해 상반기 SIMPAC에 첫 발을 내디딘 신입사원 중 5명이 한 자리에 모여 그 가능성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각자의 부서에 배치돼 자신의 열정을 발산하며 서서히 SIMPAC인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이들, SIMPAC 신입사원의 당찬 꿈을 들어보자.

Talk Talk 참석자



전기제어Part 최용성



설계팀 김상엽



경영지원팀 지영훈



해외영업팀 황보람



개발팀 유승훈



SIMPAC에 입사하게 된 과정과 각자 맡고 있는 업무를 소개해주세요.

유승훈 : 자동화 기계를 전공한 저에게 SIMPAC은 언제나 일하고 싶은 회사였습니다. SIMPAC은 국내 프레스 1위에 빛나는 기업 아닙니까. 상반기에 채용 공고가 뜨는 것을 보고 바로 지원했고 올해 4월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개발팀에 유압프레스Part가 새로 생겼는데, 그 곳에서 유압프레스 설치와 시운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황보람 : 유승훈 사원과 입사 동기로 지난 5월 해외영업팀에 배치되어, 현재 동남아 시장인 태국, 인도네시아 등지를 대상으로 한 프레스 판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SIMPAC은 제 친구가 좋은 회사라고 추천해주어 함께 지원했는데 아쉽게도 저만 입사하게 되었네요.

김상엽 : 저희 학교에 SIMPAC 직원분이 회사를 홍보하러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를 계기로 SIMPAC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교수님이 저를 추천해 주시기도 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설계팀에 배속되어 선배님들의 보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아직 수습기간이라 교육을 받으며 많이 배우는 중입니다.

최용성 : 저는 타 회사에서 7년간 근무하다가 이제 준비를 하던 중 SIMPAC의 사원 채용을 보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전기제어Part에서 선배님들의 업무를 보조하고 있는데, 경력적이지만 신입사원 같은 초심으로 열심히 배우며 일하고 있습니다.

지영훈 : 저는 경영지원팀에서 총무 업무를 맡고 있는데 주로 안전보호구, 피복 등 현장에서 필요한 물품을 지급하고 구입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신입사원이라 많이 배우고 있는 단계입니다. SIMPAC은 학교 선배들이 좋은 회사라고 추천해줘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입사 후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가요?

유승훈 : 대형 프레스 기계가 많고 높은 곳에서 일하는 등 현장에 위험한 작업이 많지만 회사에서 무엇보다 직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는 점이 매우 인상적이고 마음도 놓였습니다.

황보람 : SIMPAC이 국내 프레스 시장에서 압도적인 1위 기업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어요. 중견기업이 대기업을 제치고 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한다는 것이 대단하게 느껴지고 그만큼 내실이 탄탄한 회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상엽 : 입사 후 OJT 기간에 SIMPAC그룹의 계열사를 방문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네요. 각 계열사 모두 가족 같은 분위기 속에 서로 협력하는 직원들의 모습이 훈훈했습니다. 무엇보다 국내를 넘어 세계로 뻗어 가는 SIMPAC그룹의 역량이 무척 자랑스러웠습니다.

입사 후 힘든 점과 그걸 극복하는 방법이 있다면 들려주세요.

지영훈 : 총무 업무를 맡고 있다 보니 수시로 돌아다녀야 하는 데요, 신입사원으로서 다양하고 폭넓게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힘들 때도 있지만 “수고했다”는 말 한 마디에 힘을 얻어 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팀의 선배님들이 소소하게 잘 챙겨주시기도 합니다. 제가 더위를 잘 타고 땀이 많은 편인데, 어느 날 책상 위에 쪽지와 음료수가 있더군요. “영훈 씨 많이 힘들죠? 시원한 음료수 마시고 힘내요!” 따뜻한 배려에 기운이 솟아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황보람 : 저는 문과 출신이라 기계에 대한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입사했기 때문에 더 열심히 배우고 공부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외영업은 판매와 관리뿐만 아니라 경영과도 업무가 관련되니 전에 경영학을 공부해 둔 것이 그나마 도움이 될지 모르겠네요. 모르는 것은 그때그때 물어보고 배워나가며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김상엽 : 우리 부서가 속해있는 R&D 연구소에는 멘토링 제도가 있습니다. 선배와 신입사원이 1:1로 맺어져 업무 및 회사생활에 대한 여러 가지 조언을 얻으며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조언을 구하고 상담하며, 심적으로 의지할 멘토가 생기는 유익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SIMPAC인으로서는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싶은지 각자의 꿈을 말씀해주세요.

지영훈 : 영화에는 주연과 조연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연을 빛나게 하는 것이 바로 조연의 역할이지요. 인사총무 업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직원들이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고의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주연을 빛내주는 조연의 마음으로 감초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싶습니다.

최용성 : 저는 경력적으로 입사했지만 다른 신입사원들과 같은 초심의 자세로 열심히 배우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 경력을 십분 살리고 열정적으로 도전해 전기제어Part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김상엽 : SIMPAC이 글로벌 기업으로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자동차 분야인데요, 자동차 제조 공장 라인에 SIMPAC의 프레스를 납품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해내고 싶습니다. 또한 사원으로 시작해 회사 중역까지 올라가 언젠가는 SIMPAC을 이끌어가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

황보람 : 해외영업력을 더욱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 역량을 키우고 도전하고자 합니다. 국내 자동차 회사뿐 아니라 벤츠, 폭스바겐 등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에 우리 SIMPAC의 프레스를 납품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유승훈 : 전기제어Part에 있다가 이번에 개발팀 유압프레스Part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신생 부서이니만큼 기반을 다지고 성장해나가는 데에 많은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새로 개척하는 마음으로 최고의 성과를 창출하는데 힘을 더하겠습니다.





한 잔의 Hof에 희망(Hope)을 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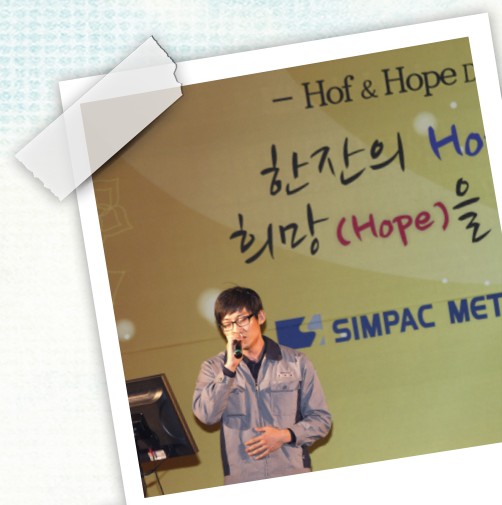
SIMPAC메탈로이 호프데이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던 지난 6월 10일, 2공장 뒤뜰에서 즐거운 잔치 한마당이 열렸다. 하루 일과를 마친 직원들이 미소를 머금은 얼굴로 하나 둘 행사장에 모여들기 시작했고, 최진식 회장과 송호석 대표이사가 환한 얼굴로 일일이 인사와 악수를 건네며 이들을 반겼다. 일하느라 출출해진 직원들은 Hof와 맛있는 바비큐, 문어 등을 즐기며 담소를 나누며 하루의 피로를 풀었다.

이날 행사에서 최진식 회장은 “철강시장 경기 침체로 우리 직원들의 어깨가 많이 처져있는 것 같다”며, “행사 슬로건처럼 우리 앞에 놓여진 ‘한 잔의 Hof’에 ‘희망(Hope)’을 담자”고 말하며 건배 제의를 했다. 이어 송호석 대표이사도 “경기는 어렵지만 우리는 항상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했기에 지금의 위기는 기회이자 희망일 것”이라며 직원들을 독려했다.

전문 통기타 가수의 구성진 노래를 배경으로 파티는 점차 무르익어 갔다. SIMPAC 메탈로이의 호프데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지 해는 더욱 붉은 노을을 만들며 저물었고, 반짝이는 조명이래 직원들은 자신들의 노래실력을 한껏 뽐내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이윽고 해가 저물어 집에 돌아가야 할 시간이 가까워오자 모두들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한 채, 카메라 앞에서 힘찬 화이팅을 외치며 추억의 단체사진을 남겼다.

신문을 펼치면 ‘경기가 어렵다’, ‘실업률 최고치’ 등의 부정적인 소식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요즘이지만 이날만큼은 SIMPAC인들의 잔에 Hof가 아닌 Hope가 가득 담겨 있는 듯 했다. “SIMPAC메탈로이 화이팅!!!”



푸른 하늘 아래, 웃음 가득한 어느 특별한 저녁

SIMPAC메탈 가든파티

유난히 맑은 하늘이 기분 좋은 6월의 마지막 목요일. SIMPAC메탈 임직원들은 하루 일과를 끝내고 한데 모여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를 시작으로 맛있는 저녁식사와 노래자랑까지, 임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단합을 돕는 가든파티를 연 것이다.

파티 시작 전, 구내식당 홀에서는 최진식 회장 및 송호석 대표이사와의 간담회가 열렸다. SIMPAC메탈의 현재와 미래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임직원과 나누며 목표를 향해 한 마음, 한 뜻으로 나아갈 것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곧이어 이동한 사무복지동 앞 정원에는 직원들을 위해 준비된 먹거리가 푸짐하게 차려져 있었다. 즐거운 날엔 잔칫상이 빠질 수 없는 법! 바비큐와 치킨, 시원한 맥주까지 배불리 즐기는 직원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떠날 줄 몰랐다.

전문밴드의 연주를 들으며 깊어가는 저녁, 흥이 오른 직원들이 마이크를 잡으며 가든파티의 분위기는 더욱 무르익어갔다. 주거니 받거니 함께 열창하며 허물없이 어울려 노는 모습에 지켜보는 사람들의 어깨도 덩달아 들쭉였다. 달보다 환한 얼굴로 파티를 즐기는 SIMPAC인들의 표정처럼 SIMPAC메탈의 내일에도 이렇게 밝은 빛이 비치리라 기대되는 특별한 저녁이었다.



SIMPAC인의 여름 나들이

커피의 향긋함과 양떼목장의 재미를 찾아 떠난 여행



SIMPAC메탈로이 2공장 가공반 이정형 사원

뜨거운 햇살이 강렬히 내리쬐는 7월 초, 사랑하는 여자친구와 함께 푸르른 바다를 끼고 시원하게 뻗어 있는 7번 국도를 따라 여행을 시작했다. 본격적인 휴가철이 아니라 다소 한적해 여행을 하기에는 안성맞춤인 듯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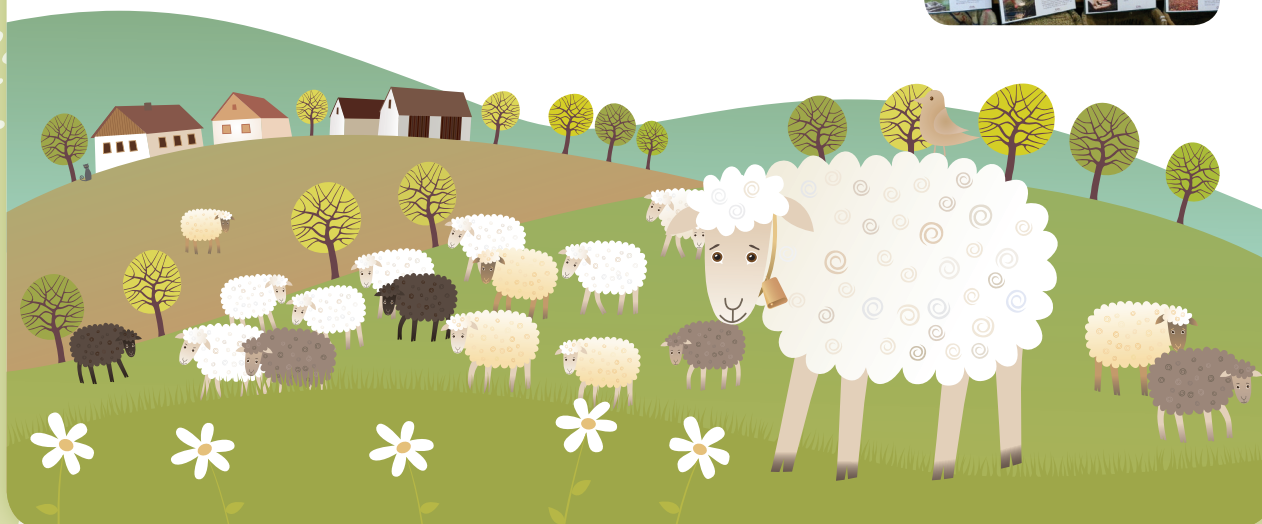
그동안 못했던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우리의 첫 번째 목적지인 '강릉'에 도착했다. 평소 여자친구와 만나면 향긋한 커피를 마시며 데이트를 즐기다 보니 자연스레 커피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 그래서 관련 서적을 찾아보다가 강릉이 마니아들 사이에서 커피 1번지로 불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꼭 한번 오고 싶었던 곳이다. 우리는 그 중에서도 잘 알려진 '테라로사 커피공장'으로 향했다. 그 곳에 도착한 우리는 곳곳에 놓여 있는 아기자기한 소품들과 고즈넉한 배경을 뒤로 많은 사진을 남겼다. 그리고 이미 향긋한 커피를 즐기고 있는 커피마니아들 사이에서 한 잔의 커피와 갓 구워낸 고소한 빵으로 우리들만의 '애프터눈 티(?)'를 즐겼다. 커피를 좋아하고 관심이



많은 SIMPAC인들이라면 한 번쯤 들려볼 만한 여행지인 것 같았다.

든든히 배를 채우고, 우리 둘만의 추억도 가득 채우고 난 뒤, 두 번째 목적지인 '대관령 양떼목장'으로 향했다. 테라로사 커피공장에서 차로 40분 정도 달리니 이제 풍경은 바다가 아닌 녹음이 짙은 산으로 바뀌었다. 여름엔 무조건 바다가 최고라는 생각도 양떼목장의 푸르른 초원과 나무들 사이 불어오는 산들바람에 '이렇게 산으로 오는 것도 좋은 피서가 될 수 있겠다'는 쪽으로 바뀌었다. 저 멀리 초원 위를 한가로이 누비고 있는 양떼를 보고 있자니 이보다 더 평온한 풍경은 없으리라 싶었다. 하지만 녀석들이 워낙 멀리 있어 그 귀여운 자태를 보기 힘들었는데, 멀리 먹이주기 체험장이 보였다. 얼른 달려가 건초를 한 움큼씩 쥐고 양에게 다가갔다. 조금이라도 더 먹기 위해 없는 목을 쭉 빼는 모습이 너무나 귀여웠다. 우리는 어린 아이들 마냥 신나게 먹이를 주고 쓰다듬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양떼목장은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로도 좋았지만 아이들과 여행하는 SIMPAC인들에게 더욱 좋은 여행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올 여름, 아직 여행지를 선택하지 않은 SIMPAC인이 있다면 강릉 '테라로사 커피공장'과 '대관령 양떼목장'을 적극 추천해 주고 싶다.



당신을 칭찬합니다

SIMPAC

고객지원팀 김대겸 반장이 조립4반 신현만 반장에게

어느 부서의 어떤 분을 칭찬하고 싶으신가요? 이유는 무엇인지요?

조립4반 신현만 반장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신현만 반장은 슬라이드Part에서 오랜 경험과 노하우로 품질향상에 노력하고 있으며 예전에는 제안왕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항상 긍정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다른 직원들의 귀감이 되고 있으며 저 또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후배들에게 많은 기능과 노하우를 가르쳐 주기 바랍니다.



신현만 반장

SIMPAC

고객지원팀 전창화 대리가 생산2팀 정진희 대리에게

어느 부서의 어떤 분을 칭찬하고 싶으신가요? 이유는 무엇인지요?

생산 2팀 정진희 대리입니다. 고객지원팀 업무의 특성상 긴급하게 가공을 요청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기존 생산 일정이 계획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공품을 올리려면 조율이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최대한 일정에 맞춰 A/S 공사가 가능하도록 노력해주는 것을 참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정진희 대리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큰 공사를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두 분만의 특별한 인연이나 공통점이 있나요?

입사 때 면접을 같이 봤는데 정 대리가 첫 번째, 제가 두 번째 자리에 앉아서 면접을 봤습니다. 어쩌나 말을 잘하던지 그 덕에 제 차례가 되었을 때 떨어져 자기소개를 한 번 더 했던 기억이 납니다. 다행히 같이 입사하게 되어 지금까지 입사 동기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 대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요즘도 가공을 요청하면 "창화야 못들은 걸로 할게!" 라고 농담 아닌 농담을 하곤 하니까요.^^ 정진희 대리! 앞으로도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SIMPAC인더스트리

설계팀 감속기Part 박종진 사원이 설계팀 감속기Part 김보람 계장에게



김보람 계장과 박종진 사원

어느 부서의 어떤 분을 칭찬하고 싶으신가요? 이유는 무엇인지요?

설계팀 감속기Part의 김보람 계장님입니다. 계장님은 업무에 대한 책임감이 강하고 후배들을 아껴주는 분입니다. 아직 업무에 대해 모르는 부분이 많은 저를 언제나 자상하게 가르쳐주시고, 개인적으로도 여러 도움을 주셔서 회사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두 분만의 특별한 인연이나 공통점이 있나요?

묵묵히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자기계발을 위해 노력한다는 점을 계장님과 저의 공통점이라 꼽고 싶네요. 앞으로도 공통점을 유지하며 직장 선배배 관계를 떠나 친형처럼 편안한 관계를 계속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SIMPAC메탈로이

2공장 가공반 이효성 사원이 Roll영업팀 김재희 대리에게



김재희 대리와 이효성 사원

어느 부서의 어떤 분을 칭찬하고 싶으신가요? 이유는 무엇인지요?

Roll영업팀 김재희 대리입니다. 항상 웃으며 다니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그 웃음이 다른 이들에게도 활력소가 되는 것 같아요, 마주설 때면 입꼬리가 먼저 올라가게 되거든요. 덕분에 모두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서 늘 고맙습니다. 또 자신을 낮추고 상대의 말에 귀 기울여 주는 점, 동료들과 허물없이 지내는 모습을 늘 본받고 싶습니다.

특별한 인연이나 공통점은? 서로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나요?

김재희 대리의 업무 추진력이나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정말 인정해주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와 유사하면서도 늘 배우고 싶은 점들입니다. 또한 직장 동료의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속에 있는 얘기들도 마음 편히 할 수 있을 정도로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며, 서로가 필요할 때 거리낌 없이 도와줄 수 있는 신뢰로 이루어진 동료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앞으로 더 친해져서 의형제처럼 지내고 싶은 바람이 있습니다.

SIMPAC메탈

생산팀 박철기 반장이 생산팀 남호문 반장에게



박철기 반장과 남호문 반장

어느 부서의 어떤 분을 칭찬하고 싶으신가요? 이유는 무엇인지요?

생산팀 남호문 반장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항상 긍정적으로 여유를 갖고 생활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건강을 위해 쉬는 날이면 부지런히 전국의 산으로 산행을 즐기며 자신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 가는 것을 본받고 싶습니다.

두 분만의 특별한 인연이나 공통점이 있나요?

제가 처음 SIMPAC메탈로이 옮겨와 혼자 생활하고 있을 때, 퇴근 후에 남호문 반장이 제가 처음 SIMPAC메탈로이 옮겨와 혼자 생활하고 있을 때, 퇴근 후에 남호문 반장이 많은 시간을 할애해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곤 했습니다. 당시 함께 컨테이너 생활을 하며 애로사항이나 설비 등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으며 지금도 서로 허물없이 지내며 가깝게 지내고 있습니다.

SIMPAC NEWS

SIMPAC그룹

朴대통령 중남아시아 3개국 순방에 최진식 회장, 경제사절단으로 동행



지난 6월 16일부터 21일까지 5박 6일 동안 진행된 박근혜 대통령의 중남아시아 3개국 순방에 SIMPAC그룹 최진식 회장이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했다. 지난해 미국을 시작으로 총 9번째 치러진 이번 해외순방은 유라시아 지역의 3개국인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그리고 투르크메니스탄을 방문하는 일정이었다. 이들 나라는 풍부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경제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어 현재 우리 기업들이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다. 유라시아 지역 시장공략을 목표로 순방길에 함께 나선 경제사절단은 대기업 18명, 중소기업 57명, 공공기관 9명, 금융기관 2명, 협회·단체 7명 등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최진식 회장을 비롯, 전체의 63%를 차지한 중소기업 인사들은 사절단원 자격으로 현지에서 세일즈 활동을 전개했다.

윤상홍 산업부 통상협력총괄과장은 “경제사절단은 중남아시아와의 사업 관련성, 순방 활동도, 사업 유망성 등을 고려해 선발했다”며 “세일즈 외교를 활용한 중소기업의 신흥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유망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구성했다”고 참석자 선정 기준을 설명했다.



최진식 회장, 제14대 대한조정협회 회장 당선

SIMPAC그룹 최진식 회장이 지난 5월 23일 대한조정협회 제14대 회장에 당선되었다. 참석 대의원 14명의 만장일치로 새 수장이 된 그는 “지난 2013년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성공리에 개최했고 그 열기를 이어 받아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등의 굵직한 국제대회를 잘 치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당선 소감을 밝혔다.

덧붙여 “국내조정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힘쓸 것이며 2014년 아시안게임과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를 대비해 국가대표팀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며 향후 계획을 밝혔다.

SIMPAC홀딩스 이엔지부문



강화도에서 1박 2일 워크샵 실시

SIMPAC홀딩스 이엔지부문은 지난 6월 20일과 21일, 1박 2일 일정으로 강화도에서 워크샵을 실시하였다. 금요일 오후, 업무를 정리한 직원들은 배정된 차량에 나누어 탑승하여 워크샵 장소인 강화도로 향했다. 목적지에 도착 후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각 부문별 주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올해 추진과제 진행현황 및 각자의 업무목표 진행현황, 하반기 계획이 그 내용이었다. 사뭇 진지한 분위기 속에 열린 토론을 마친 직원들은 숙소 내 바비큐실로 이동해 푸짐한 저녁식사를 했다. 잘 돌아온 숯불 위에 고기를 굽고 맥주잔을 부딪히며 선후배, 동료 간 마음을 열고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날 아침, 황태해장국으로 속을 든든히 채운 직원들은 바다 풍경과 산 내음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근처 낙조 조망대를 돌며 자연을 만끽했다. 길지 않은 1박 2일 일정이었지만 SIMPAC홀딩스 이엔지부문 직원들의 생각과 추억을 공유할 수 있어 모두에게 뜻깊은 시간이었다.

SIMPAC홀딩스 이엔지부문

◎ SIMPAC홀딩스 이엔지부문의 1박 2일 워크샵 현장 ◎



SIMPAC NEWS

SIMPAC메탈로이

수평적 성실납세 이행협약 체결

2014. 5. 9(금) 대구지방국세청



수평적 성실납세 이행협약 체결

지난 5월 9일, SIMPAC메탈로이와 대구지방국세청은 대구에서 수평적 성실납세 이행협약을 체결하였다. 수평적 성실납세는 윤리경영 및 투명경영을 담보할 만한 요건을 갖춘 기업과 국세청이 상호 협약을 체결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만남을 통해 세무문제를 해결하고 협약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기세 무조사를 면제하는 등 세금문제에 신경 쓰지 않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이다. 협약기간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로 3년 동안이며, SIMPAC메탈로이는 확고한 투명경영 의지와 모범적인 납세활동을 인정받아 2011년에 이어 재선정되었다.



프로야구 경기 단체 관람

지난 5월 21일과 6월 27일 양일간 SIMPAC메탈로이 1, 2공장 임직원들은 포항 야구장에서 열리는 프로야구 경기를 단체 관람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가족들과 함께 포항야구장을 찾은 임직원들은 김밥과 통닭, 피자 등 준비된 음식을 먹으며 풍선막대 등의 응원도구를 가지고 열띤 응원을 펼쳤다. 이런 우리들의 응원이 통했는지 국민타자 이승엽은 양일 모두 홈런을 기록하는 등 알찬 경기내용으로 야구를 잘 모르는 아이들까지 즐겁게 해주었다. 시원한 강바람이 불어오는 야구장에서 직장동료들, 가족들과 함께 소리치고 손뼉을 치며 그동안의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수 있는 멋진 하루였다.



QSS활동 3기 Kick off

지난 7월 7일, 좋은 일터 만들기 일환으로 진행 중인 QSS활동의 3기 kick-off가 있었다. 이날 행사장에 모인 SIMPAC메탈로이 임직원 일동은 안전한 일터, 효율적인 일터, 깨끗한 일터를 만들겠다는 다짐과 함께 안전맹세를 통해 다시 한 번 안전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였다. 이날 행사에서 송효석 대표이사는 좋은 일터 만들기, 특히 안전한 일터 만들기를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그리고 설비안전팀 박성배 차장, 설비반 정진교 사원, 전기로 윤석중 사원으로 이루어진 3기 개선리더들은 설비 전문가가 모인 만큼 체계적인 개선으로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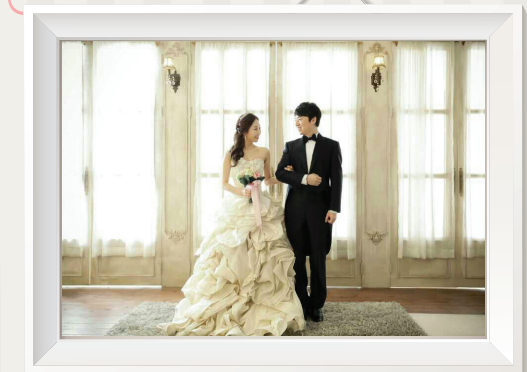
Congratulation

결혼을 축하합니다

선남 SIMPAC인들이 소중한 인연을 만나
화축을 밝혔습니다.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에 선 이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해주세요.

5월 31일

SIMPAC 고객지원팀 백광민 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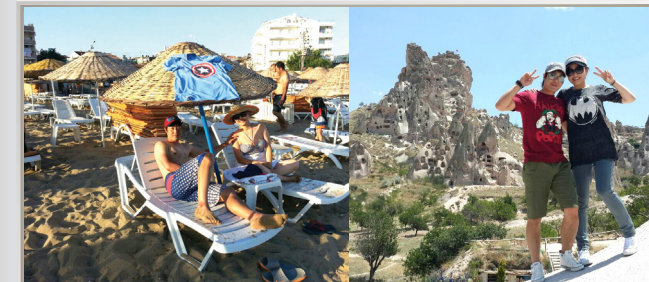
5월 31일

SIMPAC 공무Part 이성은 사원



6월 14일

SIMPAC 경영지원팀(전산) 최진식 사원



7월 5일

SIMPAC인더스트리 공기Part 최인석 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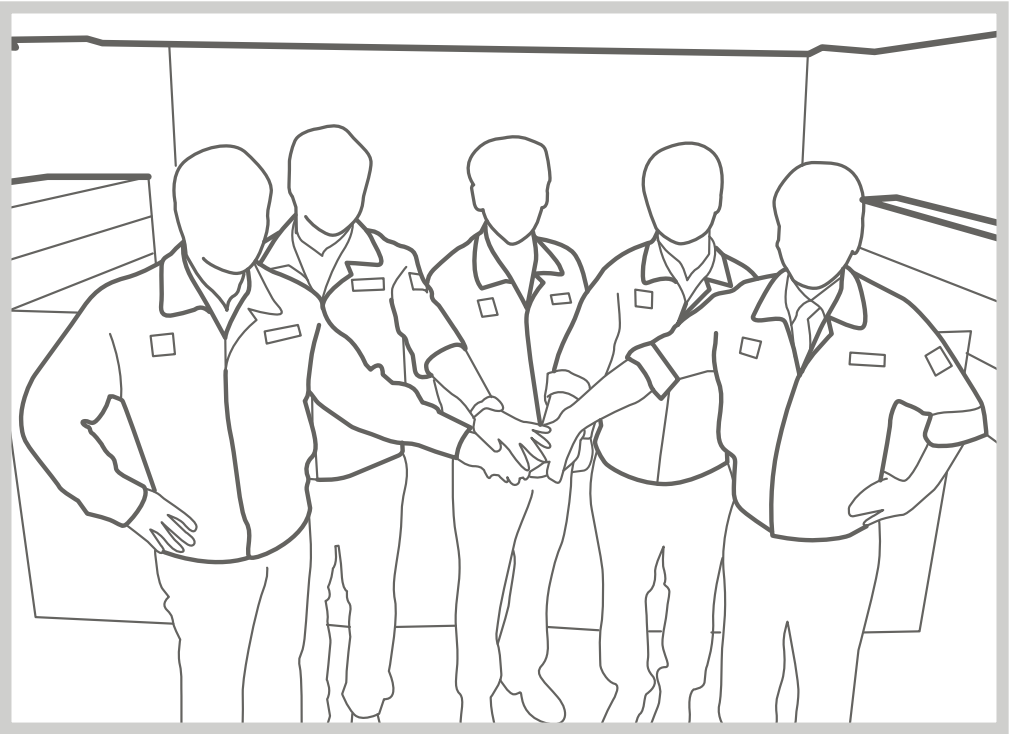
다른그림찾기 답지

답은 총 네 군데에 있습니다.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여 각 사
사보 담당자에게 전달해주세요.

〈참가자 정보〉

소속 :

성명 :



다른그림찾기

왼쪽 사진과 다른 점이 오른쪽 사진에 네 군데 있습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답지에 체크하여 8월 30일까지
각 사 사보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세요.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



다른그림찾기 지난 호 당첨자

SIMPAC홀딩스 이엔지부문
생산품질팀 · 문경근 과장 / 서상철 사원

SIMPAC
조립3반 · 이충희 사원 / 고객지원팀 · 신현정 사원

SIMPAC메탈로이
설비안전팀 · 김혜미 사원 / 2공장 가공반 · 최태광 사원

